

지역 소식통

부안군, 주니어보드 소통 공감 원데이클래스 행사

부안군은 지난 2일 부안청년 UP센터에서 주니어보드(Junior board)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원데이클래스 행사를 개최했다. 주니어보드는 20~30대 젊은 공직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평적 소통문화를 조성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아이디어 제안으로 공직문화 변화를 선도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지난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 중이다. 이날 행사는 주니어보드 17팀 50여명의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수제디저트(수제청, 오란다) 만들기 체험을 통해 젊은 공직자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부안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소통·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젊은 공직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군정 운영에 생동감 있는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한다"며 "젊은 공직자들의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펼쳐 전 세대가 공감하는 조직문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복합문화센터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

정읍시는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2023년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과학원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과학관'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전라권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이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과학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순회하며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로 △과학기술 전시 체험물 △미디어인터랙티브 콘텐츠 체험 △과학교육·실습 △과학공연·강연 등을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의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해 봄으로써 과학에 더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만석보, 동학혁명의 시작”

정읍시, 만석보 위치 고증·활용 방안 모색 위한 학술대회 개최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지난 3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만석보 위치 고증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이학수 시장과 재단 관계자,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동학참여자 유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자들의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를 맡은 원현종 연세대학교 교수는 "19세기 고부지역 수리시설 현황과 만석보 수세 징수" 발표를 통해 고부농민봉기 발생 원인과 관련해 19세기 후반 고부군 지역의 수리시설 현황과 수세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제2주제는 흥성덕 전주대학교 교수가 "전라북도 기념물 만석보의 위치 재지정 검토"를 주제로 진행했다. 흥 교수는 1973년 건립한 만석보유지비(萬石遺址碑)의 위치 문제를 지적



하며 기념비는 역사적 현장에 세워졌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3주제는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의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으로 조선 후기 만석보의 변천 과정을 추적, 문화재 지정과정과 기념사업 현황에 대해 논하고 향후 만석보의 상징성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방안을 제시했다.

제4주제는 박정민 전북대학교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상징 공간으로서 만석보 활용 방안"이었다. 박 교수는 고

부가 가진 역사적 위상과 만석보에 대한 인식과 기사 내용 등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를 마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농민봉기의 촉매제 역할을 한 만석보의 위상을 재검토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만석보의 정확한 위치 고증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상징 공간으로서의 만석보 활용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은 "지역과 연계하는 학술대회를 적극 추진해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과 연구 활성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학수 시장은 "만석보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제공한 상징적 공간"이라며 "만석보 종합정비사업을 계획하여 동학농민혁명 주요 핵심 유적지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향사랑기부협의회체 간담회

부안군, 민관협력 강화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부안군은 지난 3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부안군 고향사랑기부협의회체(가칭) 구성·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권익현 부안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사회단체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 관련 자발적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 하였다.

이날 31개 부안군 사회단체장은 단체인 서로의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협의회체의 협업 방안 및 효율적인 고향사랑기부을 위한 방안

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 사회단체는 부안군에 100년을 위한 영원한



동반자로서 한발 한발 함께 걸어 나가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 민간협의체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더욱 긴밀한 협력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모양성마을 한옥게스트하우스 내년 1월 운영

고창군이 지역 최초 한옥식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고창읍성 동문연결로 일원에 한옥 게스트하우스(네모모양 한옥게스트 하우스)를 지난 7월에 준공했다.

이후 9월부터 주민 운영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했고, 모양성제 기간(10월 20~22일, 23~25일)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거쳤다.

축제 기간 중에는 숙소운영 전문가 18명의 시범운영단이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다.

여행객들의 축제 참여로 통해 고창

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동문 신책로를 통한 읍성 접근성이 좋아 여행객들의 만족도가 컸다.

마을주민들은 조식부터 체크인, 체크아웃까지 실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고객 응대와 서비스제공 등의 역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숙박 후 시범운영에 따른 만족도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정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게스트하우스는 내년 1월 중 정식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용평리조트,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 협약 체결

대규모 민간투자 현실화

고창군이 (주)메그놀리아 용평호텔 앤리조트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용평리조트와 양자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7월에는 전라북도까지 포함 3자 MOU를 통해 용평리조트의 민간투자(3500억원)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협조관계를 공고히 다져왔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역할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

규모 민간투자를 현실화했다.

고창군과 용평리조트는 서해안 고창갯벌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및 레저시설을 짓고 명품 해양생태관광지 조성의 꿈을 구체화한다.

2025년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완공으로 고창군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최소 300실 이상의 중대형급 숙박시설이 조성되면서, 고창군의 숙원사업인 "체류형 생태관광지 조성"에 한발짝 다가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치유문화축제 선운산서 개막

'법정문화도시' 전북 고창군이 지역주민과 예술인 방문객이 '치유'를 주제로 하나되는 '제1회 치유문화 축제(3~5일)'를 열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고창문화도시센터에서 주최·주관하는 '2023 고창문화도시 치유문화축제'가 선운산도립공원 잔디마당에서 개막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치유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이후 고창군은 주민이 주도적으

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를 기획했다.

축제 첫날인 3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북분자 와인과 함께하는 치유음악 공연(가수 알리, 여행스케치, 박학기 등), 모두 함께 배우는 치유제조와 심잉불이 펼쳐진다.

4일에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지역문화공연, 북분자 와인과 함께하는 치유음악 공연(가수 몽니밴드), 모두 함께 배우는 치유요가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전통과 퓨전의

소리 지역문화공연, 북분자 와인과 함께하는 치유음악 공연(박애리), 치유특강(문화심리학자 김정운 '행복의 조건'), 모두 함께 배우는 발벌공연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10개 체험 프로그램(항기치유, 다도치유, 미술치유, 소금치유, 곤충치유, 음식치유 등)과 트리클라이밍, 인생네컷, 타로 등 체험, 고창군의 농특산물 플라마켓 등이 운영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문화도시 고창이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와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지적재조사위, 조정금 산정 등 심의·의결

정읍시는 지난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3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덕안2지구 125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했다. 이와 함께 신대안3지구와 시기지구 121필지 조정금 이의신청, 송산지구 지적공부정리 허용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번 위원회 결과에 따른 의결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특히 덕안2지구 토지소유자는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수령 또는 납부해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올해 국비 7억여원을 확보해 시기동, 송산동, 소성면 등계리, 김곡면 계룡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2년에 걸쳐 추진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